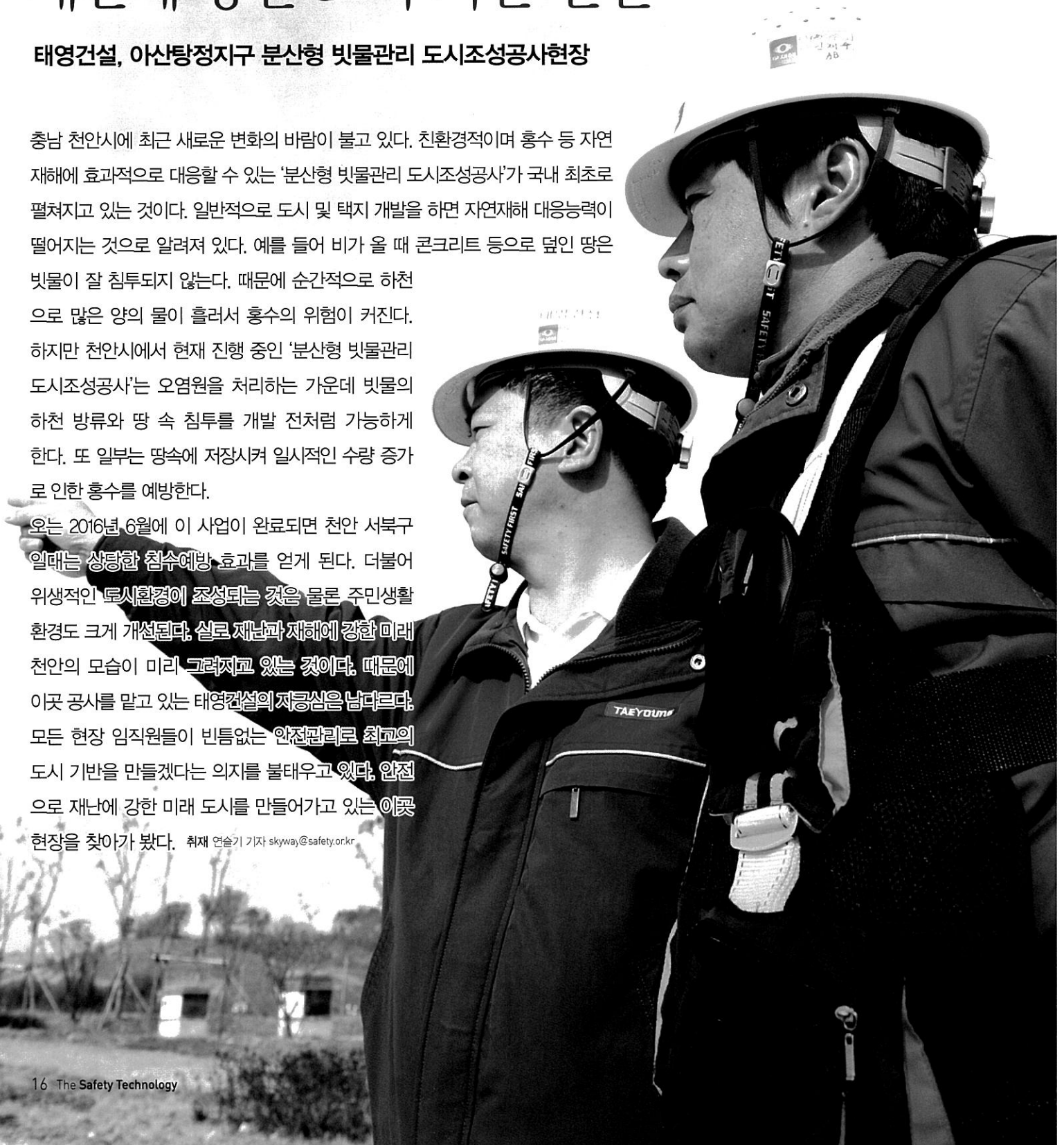


# 안전으로 재난에 강한 도시 기반 건설

태영건설, 아산탕정지구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현장

충남 천안시에 최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홍수 등 자연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가 국내 최초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및 택지 개발을 하면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비가 올 때 콘크리트 등으로 덮인 땅은 빗물이 잘 침투되지 않는다.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천으로 많은 양의 물이 흘러서 홍수의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천안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는 오염원을 처리하는 가운데 빗물의 하천 방류와 땅 속 침투를 개발 전처럼 가능하게 한다. 또 일부는 땅속에 저장시켜 일시적인 수량 증가로 인한 홍수를 예방한다.

오는 2016년 6월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천안 서북구 일대는 상당한 침수예방 효과를 얻게 된다. 더불어 위생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주민생활 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실로 재난과 재해에 강한 미래 천안의 모습이 미리 그려져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곳 공사를 맡고 있는 태영건설의 자긍심은 남다르다. 모든 현장 임직원들이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최고의 도시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안전으로 재난에 강한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봤다. 취재 연승기 기자 skyway@safety.or.kr



### 장비로 인한 충돌·협착재해 제로화

현재 이곳 현장의 공정률은 약 10% 정도로, 절토·성토작업, 운반작업 등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각종 건설 차량 및 장비의 사용이 빈번하다. 이는 곧 중장비로 인한 전도, 협착, 충돌, 교통사고 등의 재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곳 현장은 ‘장비로 인한 충돌·협착재해 제로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곳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장비기사들의 안전의식 향상’이다. 일반적으로 장비기사들은 계속 현장 안팎을 오가거나 장비 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현장에서 ‘안전’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로 인해 대부분 안전의식이 낮은 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곳 현장은 매일 아침 작업 전에 실시되는 위험예지 활동에 현장 내 모든 장비기사들을 출석하게 했다. 이 자리에서 안전관리자 및 현장 임직원은 근로자 복장 상태 점검, 건강상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그날 작업의 위험 요인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또 피로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형식적인 스트레칭이 아닌 근로자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스트레칭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태영건설 자체 스트레칭에 더해 외부 유명 강사를 통한 스트레칭까지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 불안전 행동, 원천 차단

이곳 현장은 다소 엄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관리가 깐깐하다. 실로 ‘안전에는 절대 타협이 없다’는 철학이 현장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일례로 대부분의 현장이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조치로 3진 아웃제(불안전한 행동 3번 적발 시 현장 퇴출)를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이곳은 ‘1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단 한번만 불안정한 행동을 해도 즉각 현장에서 퇴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곳은 ‘시스템 안전관리’가 제대로 정착된 현장으로도 유명하다. KOSHA18001 시스템이 적용된 이곳은 사전에 2주간 예정 공정표를 협력업체로부터 받아 공정에 따른 위험요소를 도출, 그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 수립된 대책을 가지고 협력업체와



협의체 회의를 한 후 최종 결정된 방안을 근로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전파된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일일안전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며 확인·점검하고 있다.

###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안전

근로자들의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감성 안전’도 이곳 현장의 장점이다. 이곳은 임직원과 근로자들 간에, 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스킨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체적인 접촉이 많을수록 현장 구성원 간의 동료애가 깊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곳은 악수나 포옹이 섞인 따뜻한 인사예절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안전교육장을 상시 개방해 근로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별 특성을 감안한 간식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빈틈없는 안전보건관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 현장은 수많은 위험요소 속에서도 지난해 12월 착공 이래 지금까지 무재해를 이어가고 있다. ☺



#### mini interview



고혁배 소장

### “예방 차원의 사전관리가 가장 중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차원의 사전관리로 이뤄져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확인하는 반복 과정을 통해

안전이 생활화, 습관화될 때만이 안전한 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으로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지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현장에 자리 잡아야 재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임직원들이 일방적인 지시보다 근로자들과 함께 안전활동에 동참하여, 그들이 스스로 위험요소를 찾는 과정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를 한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관심과 애정을 쏟으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더욱 빨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재수 안전과장

### “안전관리란? 세 살배기 자식이 뛰어놀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드는 것”

우수한 안전관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해답이 막 걸음마를 떤 세 살배기

제 자식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현장을 거닐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을 사급히 제거해야 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관리입니다. 다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안전’, 즉 공정을 이해하는 안전 관리를 펼쳐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예전 공정을 모르고 후속 공정을 모르면 절대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공정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즉흥적으로 당장 눈에 띄는 위험요인에만 대처하게 되고 근원적인 해법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